기초음악 이론 및 음악에 대한 이해 ②

Pop(Motown)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듬의 이해

+ **홍세린** 삼아프로사운드 대리

❶ 음원의 BPM 찾기 및 BPM에 따른 음악 편집 Tip
❷ Pop(Motown)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듬의 이해
❸ 멜로디와 기본 화성에 대한 이해
❹ 음악으로 만들어 내는 사운드 디자인

"조금 더 정확하고 사실 검증을 위해 글을 도와준 두인보 (타악기 연주자 및 프로듀서)와 Canada에서 활동중인 Mat Keselman (드러머 및 프로듀서) 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Back to Basic Season II 첫 번째 시간이었던 지난 호에서는 음악의 기초인 빠르기(Tempo), 음표 (Note), 박자표(Time Signature), 그리고 BPM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굉장히 기초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주제들이 모두 관련된 내용이라, 제대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습득하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집어 보았다.

현 시대에 많이 사용되는 리듬 패턴 혹은 리듬의 장르를 전부 이해하기엔 그 수가 너무 많아 그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디오나 TV를 통해 매일매일 재생되는 곡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미디어에 자주 노출이 되어 많은 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는 곡들 중 그 음악의 리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이해하기도 힘들다. 또한, 이론으로 확립되기도 전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새로운 장르들이 시시각각 탄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장르들이 시시각각 탄생하고, 또 정말 괜찮은 장르들이 인기가 없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다. 이에 필자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자주 사용되는 몇몇 리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 넘어가고자 한다. 물론 그 수가 많아 이번 호에 전부를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래와 이야기를 하려 한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꽤 많았고, 그 고민의 끝은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대부분의 장르를 탄생시키고 성공시킨 Motown 음악에 대한 설명이라 결정하였다. Motown 음악의 리듬 패턴은 Motown 회사가 배출한 팝 스타들의 수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고 그 일정한 형식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파생된 리듬이 많아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부터 Motown의 역사를 시작으로 Motown의 스타들과 그들의 음악 및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Motown의 역사

Motown 하면 필자가 떠오르는 스타는 단연 Stevie Wonder와 Michael Jackson이다. Stevie Wonder는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

을 보이고 있고, 몇 년 전 우리를 떠난 Michael Jackson은 Motown 회사와 함께 The Jackson 5의 일원으로 데뷔하였다. 이 외에도 Motown은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시켰고 2000년대가 오기 전 음악산업에서 한 획을 그은 회사이다. 이 회사에 관해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필자에게 주어진 분량의 한계가 있어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 한다. 혹시 설명되는 내용 말고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www.motownrecords.com에 방문하여 둘러보는 것도 권장한다.

Motown은 Motor + Town = Motor Town의 줄임 말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주요 무대인 디트로이트 시의 애칭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 크라이슬러, GM의 공장들이 포진해 있었고, 디트로이트 시의 인구 90% 정도가 전부 자동차 산업에 종사자들이었다고도 한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위에 열거된 회사들의 투자감소 때문에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 유령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는 문화는 백인들에 한해 국한되었다. 인구의 대다수가 흑인이었던 디트로이트에서도 대중음악은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흑인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문제였는데 흑인 음악가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던 찰나에, 자동차 공장 노동자 출신인 Berry Gordy Jr.가 1959년 Motown이라는 레코딩 회사를 차리면서부터 음악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불평등한 사회적 계급사회의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었다.

*현재 Motown 박물관으로 디트로이트에 남아있는 옛 Motown 레이블 Hitsville 건물

*Berry Gordy Jr.가 초창기에는 Motown과 Tamla 두 개의 조그만 레이블을 운영하였지만, 1961년 앨범의 잇따른 성공으로 대규모 레이블로 발돋움 하였다.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 지하에는 녹음실과 휴게실, 1층엔 작곡가들과 프로듀서 작업실, 2층엔 밴드 연습실, 3층엔 안무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출처: http://joelfrancis.com>

Motown의 음악은 팝음악과 가스펠 음악, 그리고 소울 음악이 기본이 되고, 그 뼈대 위에 블루스, 락, 펑크(Funk) 등의 다양한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사가 처음부터 폭발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흑인들만의 목소리에 백인들이 동화될 수 있는 가사와 악기 연주 등으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던 중 1961년부터 Motown과 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한 The Supremes(이하 수프림즈)의 성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사실 증명을 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화 "드림걸즈"의 모티브가 수프림즈라고 인식하고 있다) Motown의 여신이라 불리는 Diana Ross가 속해있던 수프림즈는 그 시대에 전설적인 영국의 밴드 "비틀즈"를 대항하던 유일한 그룹이었으며, Motown 회사는 수프림즈의 후광을 입고 The Four Tops, Temptations, Marvin Gaye라는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내게 된다. Motown의 1세대 가수 및 그룹들의 성공은 차후 Stevie Wonder, The Jackson 5 등의 초대형 팝스타들을 배출하고, 1988년 1월 Berry Gordy Jr.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전설이 마무리되었다.

Motown의 대표적 팝 스타

*1959년에 데뷔, 1961년에 Motown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The Supremes는 1977년까지 너무나 큰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를 헤집고 다녔다.

*Supremes의 앨범은 후에 CD로도 복원이 되어 앨범이 다시 음악차트에 오르는 등 많은 전설을 남겼다.

*Motown 성공의 시작은 The Supremes부터이고, Motown이 배출한 차후의 팝스타들도 The Supremes의 성공이 아니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진 출처: http://mioaklandcounty.com>

*Marvin Gaye의 데뷔는 1961년에 시작되어 등장하자마자 메가 히트를 한 Motown의 대표적 솔로 주자이다.

*1984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Marvin Gaye는 R&B, Soul, 그리고 Funk 음악의 한 획을 그으며 아직도 많은 후배들에 의해 그의 음악이 리메이크되고 있다.

<사진 출처:http://hellobeautiful.com>

*Soul 음악부터 R&B, Jazz, Rock, 그리고 Pop까지 The Four Tops의 음악적 한계는 끝이 없었다고 느껴질 만큼 다양한 음악을 들고 나와 사랑을 받은 그룹이다.

*The Four Tops는 Motown 말고도 Columbia 같은 큰 레이블과 같이 작업을 했지만, 그들의 음악적 파급력은 Motown과 함께 있었던 시절이 최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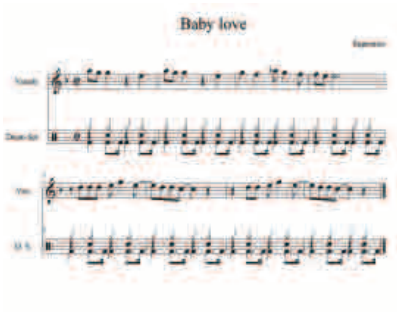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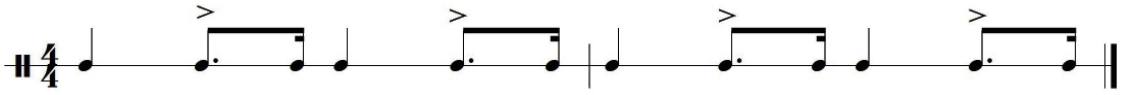
<사진 출처: http://fanart.tv/artist>

Motown 음악의 리듬패턴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Motown 음악은 다양한 장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성들은 현재 팝음악에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Motown 음악의 악기구성은 장르별로 다양한데 Bluesy 한 음악들은 대부분 평범한 악기구성에 Back Vocal을 많이 사용하여 보컬의 기교를 더 돋보이게 하고, Funk나 Soul 등의 Groove 있는 음악에는 밴드구성에 브라스 혹은 현악기 등을 추가시켜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다. Motown 이전의 흑인음악에서는 좀처럼 혼합된 구성을 찾기가 힘든데, Motown은 브라스 밴드라던가,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혼합하여 크로스 오버적인 시도를 많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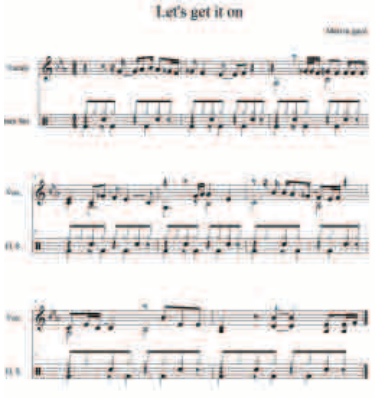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Motown의 음악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Call and Response라고 불리는 형식인데, 쉽게 말해 멜로디를 주고받는 패턴을 의미한다. 메인 보컬이 일정한 마디를 노래하고 그걸 받아서 Back Vocal들이나 악기가 그대로 연주하거나 살짝 변환(Variation)하여 연주하는 형식이다. 또 다른 한 요소는 바로 리듬 패턴의 액센트이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4/4 박자 리듬 패턴들은 한 마디 안에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이 액센트 포인트가 된다. 다들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4/4 박자 음악의 기본 리듬 액센트는 강-약-중간-약 (강한 박- 약한 박- 중간 박- 약한 박). 하지만 Motown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리듬 패턴은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액센트를 주어 다양한 리듬 패턴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Motown의 핵심 요소는 탬버린이란 악기다. 정말 웬만한 Motown 음악에는 탬버린이란 악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흔히 어떤 타악기적 효과를 위해서가 아닌 핵심적인 요소를 탬버린으로 연주한다. 탬버린을 왜 많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Motown 음악의 리듬패턴과 액센트 자리에 언제나 연주되는 악기가 바로 탬버린이다. 이걸 역으로 뒤집어 보면, Motown 음악에서 탬버린 소리를 들으면, 그 해당 음악의 정확한 리듬패턴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음악들에도 탬버린이 전부 사용되었는데 음악을 한 번 들으면서 밑에 나와 있는 리듬 설명과 탬버린의 위치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자.

Baby Love - The Supremes
발표연도 : 1963
장르 : Pop, R&B
작곡 및 편곡 : Holland-Dozier-Holland(H-D-H), Motown 프로덕션 팀
BPM : 133
악기구성 : 드럼, 베이스, 리듬기타, 브라스

1964년 10월 25일부터 같은 해 11월 21일까지 빌보드 팝 싱글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수프림즈의 Baby Love는, Motown 프로덕션 팀인 H-D-H 팀에 의하여 탄생된 곡으로 Motown의 전형적인 악기구성과 음악구성을 보여주는 음악이다.
이 곡의 리듬은 셔플 리듬이다. 셔플 리듬의 특징은 미국 남부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리듬인데, "발을 쩔뚝거리면서 걷는다" 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Baby Love에서 이용하는 리듬의 특징은 한 마디 안에서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 액센트가 붙는 것이다.

그림을 보면 셔플 리듬의 또 다른 특이점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붓 점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붓점을 이용하여 셔플 리듬만의 특이한 액센트 패턴을 만든다. 음악용어로 이것을 당김음(Syncopation)이라 한다. 이 당김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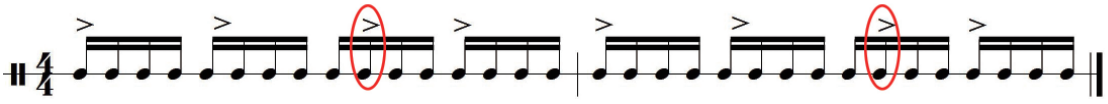
** 당김음을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뻔해질 수 있는 리듬 패턴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그 리듬이 주는 변화로 인해 듣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다. 당김음의 기본적인 개념은 한 마디 안에 있는 강한 박, 중간 박, 그리고 약한 박의 구조를 바꿔 강한 박이 들어올 타이밍에 약한 박을 연주하고, 약한 박이 들어올 자리에 중간 박을 연주하여 단순한 리듬 패턴에 변화를 준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된 4/4 박자의 기본 액센트 패턴은 강-약-중간-약 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셔플 리듬은 같은 4/4 박자이더라도 액센트의 패턴이 약-강-중간-강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리듬의 액센트 변화로 인해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 주는 요소가 바로 당김음(Syncopation)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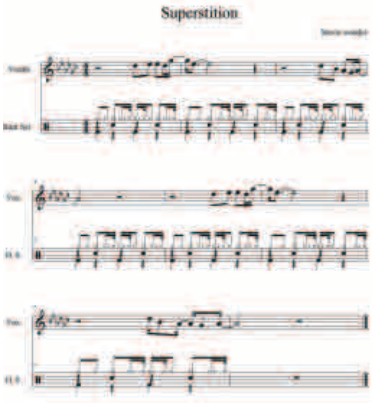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Baby Love에서 사용된 리듬을 12/8 박자로 옮겨 놓은 것이다. 지난 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셔플 리듬과 스윙 리듬은 12/8 박자로 많이 연주된다. 앞에서 본 4/4 박자의 악보와 자세히 비교해 보면 똑같은 포인트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8 박자로 표기된 악보라 하더라도 그 구성이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셔플 리듬의 구성이 Baby Love와 전부 동일하지는 않다. 가사에 따라서, 혹은 악기 연주에 따라서 조금씩 액센트에 변화를 주는데 셔플의 기본 이론만 알고 있다면 별로 문제 될 게 없다.

Let's get it on - Marvin Gaye
발표연도 : 1973
장르 : Funk, Soul
작곡 및 편곡 : Marvin Gaye, ED Townsend
BPM : 85
악기구성 : 드럼, 베이스, 리드기타, 신스

Marvin Gaye가 처음으로 선보였던 Funk 음악으로, 그의 음악적 재능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음악이 아닐까 한다.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단숨에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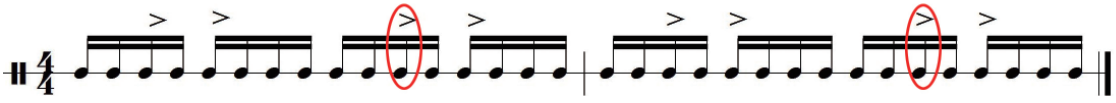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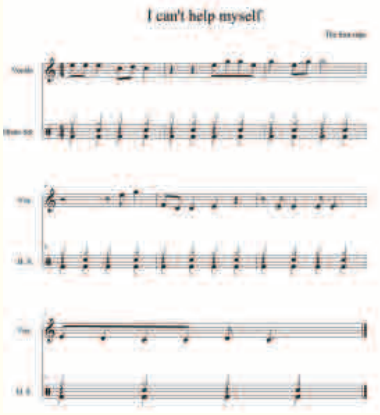
당사자와 Motown 회사에도 막대한 돈을 안겨줬다는 루머도 있다. 음악적으로나 연주적으로나 R&B 장르 그대로를 보여준 음악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 연주되고 재탄생하기도 하는 Marvin Gaye의 명곡 중 하나이다.

이 곡의 리듬은 전형적인 Funk 음악에서 사용되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Funk의 기본적인 박자표는 16분음표가 되는데, 지난 호에서 이야기 한 대로 4/4 박자인 경우 한 마디 안에 들어가는 16개의 16분음표로 액센트를 변환시켜 Funk 그 특유의 리듬을 만들어 낸다. Let's get it on에서 사용되는 리듬의 패턴은 아래와 같다.

(*Funk 리듬은 아주 다양한 리듬 패턴이 있기에 Let's get it on에서 사용된 리듬으로만 설명을 하겠다)

그림에서 Let's get it on은 Funk 리듬의 패턴을 16분음표를 나열해 놓고 원래는 9번째 16분음표에 들어가야 할 액센트를 10번째 16분음표에 적용하여 그 특유의 절뚝거림을 표현한다. 이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2번째 박과 4번째 박이 강한 박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Funk에 대한 재미있는 설이 있어 하나 이야기해 보려 한다. 미국에서 Funk란 단어는 음악용어로 대부분 쓰이지만 예전에는 겁쟁이라는 슬랭으로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Funk 음악에 당김음(Syncopation)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리듬 자체가 정박에 액센트가 들어가지 않고 정박을 피해서 연주되는 형태를 빗대어 겁쟁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여 Funk란 장르가 만들어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그냥 설이니 절대 외우거나 사실인 양 말하고 다니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공지하는 바이다.

Superstition - Stevie Wonder

발표연도 : 1972
장르 : Funk
작곡 및 편곡 : Stevie Wonder
BPM : 105
악기구성 : 드럼, 베이스, 리듬기타, 건반, 브라스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Stevie Wonder의 최고 명곡이다. I call it pretty music이라는 음악으로 Motown과의 인연을 시작한 Stevie Wonder는 1963년에 Fingertips를 발표하며 Motown과 계약 1년 만에 빌보드 1위에 입성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후 앨범을 낼 때마다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던 중, 1973년에 그의 음악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Superstition으로 그래미에 어워드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다. Superstition은 Motown 음악 중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Funk 음악이다. 이 곡에서 사용하는 리듬 패턴은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Superstition에 사용되고 있는 패턴은 앞서 살펴본 Let's get it on과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첫 번째 박에 강세가 없고 9번째 16분음표에 들어갈 액센트가 11번째에 포진하여 리듬 꼴의 변환이 있는 형태이다. 음악의 빠르기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Superstition의 리듬 형태는 Let's get it on의 리듬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당김음의 사이가 더 좁기 때문이다. 액센트가 들어 있는 강한 박들의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주 자체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BPM의 음악을 들었을지라도 빠르기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Funk 음악에는 다양한 패턴의 리듬들이 생성되고 연주되며, 같은 Funk 음악이라 할지라도 그 느낌과 성질이 확연히 다른 음악이 나오기도 한다.

I can't help myself - The Four Tops

발표연도 :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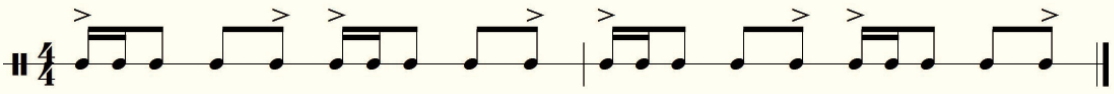
장르 : Pop, Soul

작곡 및 편곡 : Holland-Dozier-Holland (H-D-H)

BPM : 130

악기구성 : 드럼, 베이스, 리듬기타, 브라스

40년 동안 단 한 번의 멤버 교체도 없이 미국에서 정상의 자리에 있던 The Four Tops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히트곡이다. 엄청난 음반판매량을 기록하고 이 곡으로 인해 The Four Tops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I can't help myself는 발표된 후 빌보드 R&B 차트 1위에 당당히 입성하였으며, 각종 CF에서도 BGM으로 사용되어 세계인이 추천하는 베스트 100곡 안에도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곡이다.

이 곡의 리듬 패턴은 Four on the floor라는 형식인데, 다른 장르와는 달리 4/4 박자의 음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 모두 액센트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I can't help myself에서는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을 강한 박으로 하고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은 중간 박으로 연주되어 Motown 특유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곡의 리듬 패턴은 다음과 같다.

Four on the floor의 리듬 형태는 보통 디스코나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에 많이 사용된다. 매 박마다 강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BPM이 그렇게 빠르지 않더라 하더라도 통통거리며 뛰는 형태의 Groove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리듬패턴이 계속 연주된다. 언뜻 보기에는 자메이카의 대표적인 장르인 Ska 형태의 리듬 꼴과 비슷해 보이지만,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 액센트가 아예 없는 Ska와는 조금 다른 개념의 리듬 형식이다. I can't help myself에서는 드럼이 그림과 같이 리듬을 연주하지만 베이스 기타가 세 번째 박에 항상 액센트를 집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에 강한 박이 연주되어 "달리는" 음악의 느낌을 준다.

**Ska는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의 R&B 형식에 자메이카 민속 음악을 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음악 장르이다. Ska 음악의 주요 악기 구성은 드럼, 베이스, 기타, 트럼펫이 주를 이루며 더 큰 구성으로는 오르간과 트럼본이 추가되기도 한다. Rocksteady와 레게 음악의 원조 격으로 1960년대 중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음악 장르의 하나이다.

Back to Basic Season II의 두 번째 시간이었던 이번 호에서는 Motown과 Motown이 배출한 팝 스타들의 음악 중, 자주 사용되는 리듬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운 Tempo와 그 구성을 이루는 음표, 박자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였다면 이번 호에 실린 내용이 이해하는데 있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어지는 다음 호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조성(Key)과 멜로디, 그리고 기본 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이해하기 쉽게 원고를 제작 중이니 너무 부담 같지 않고 천천히 읽어보면 어느새 기초적인 음악의 이해는 잘 다듬어져 있으리라 기대한다.